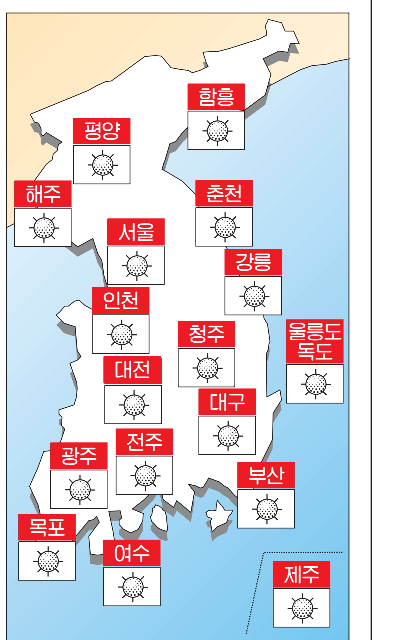
주말 휴일 일교차 주의

9월 23일 (음 8월 2일) 날씨

고기압에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맑겠으나 구름이 많겠다.

광 주	15~28℃
목 포	16~27℃
여 수	19~24℃
완 도	15~27℃
구 례	14~29℃
해 남	13~27℃
장 흥	12~27℃
고 흥	15~26℃
순 천	13~28℃
영 광	15~28℃
진 도	13~28℃
전 주	15~28℃
남 원	12~27℃
정 읍	15~27℃



서해남부 앞바다 북동~남동풍 파고 0.5~1.0m
서해남부 먼바다 북동~남동풍 파고 1.0~1.5m
남해서부 앞바다 북동~남동풍 파고 1.5~2.5m
남해서부 먼바다 북동~남동풍 파고 2.0~3.0m

▲해뜸 06:21 ▲해짐 18:29
▲달뜸 06:48 ▲달짐 18:44

목포 밀물〈02:35 14:52 썰물〈07:51 20:04 여수 밀물〈09:27 21:35 썰물〈03:10 15:26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4(일)	25(월)	26(화)	27(수)	28(목)	29(금)
날 씨						
최저/최고	14/27	15/27	16/26	16/27	18/26	16/27

오늘 추분… 낮 최고 27~30도

9월 하순인데도 광주의 낮 최고기온이 28~29도로 평년보다 3~4도 이상 높게 나타나는 등 한낮에는 여름 날씨를 방불케 하고 있다.

2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광주 낮기온이 26.8까지 오른 것을 비롯해 서울 26.6도, 인천 26.6도 전주 28.4도, 대구 25.3도, 부산 24.9도 등을 기록했다.

전날인 21일 부안의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고 수원 29.8도, 서울 28.6도 등으로 평년 9월 중하순 기온보다 3~4도 높은 기온을 나타냈다.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추분(秋分)인 23일에도 광주·전남의 낮 최고기온은 27~3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휴일인 24일에도 낮에는 광주·순천 27도, 나주·구례·곡성 28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울 것으로 보인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교감이 '꽃뱀'과 짜고 동료교사 등쳐

현직 초등학교 교감이 속칭 '꽃뱀'을 동원, 동료교사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낸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 A(54)씨는 지난 6일 오후 전북 김제 모 초등학교 교감 B(57)씨로부터 "술 한 잔 마시자"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30여년 지기인 B교감의 '술자리 초대'에 의심 없이 응한 A씨는 이 자리가 교감의 '덫' 인줄 미처 몰랐다.

B교감은 이날 저녁 전주시내 모 음식점에서 A씨와 식사하는 자리에 30대 중반의 여성을 동석시켜 자연스럽게 A씨와 친해지도록 유도했으며, 술에 취한 A씨는 이 여성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게 됐다. 그러나 성관계를 마치자마자 B교감이 고용한 일당 2명이 모텔 방으로 들이닥쳤고 이들은 "교사 신분으로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학교에 알리겠다"며 협박했다.

중재역을 자청한 B교감은 "상대편 남편이 7천만원을 요구한다"면서 "학교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곤란하니 합의를 보자"고 A씨를 설득했다.

'울며 겨자먹기'로 대출까지 받아 어렵사리 6천만원을 마련한 A씨에게 B교감은 "사정이 이렇게 돼 안타깝다"며 "모자란 1천만원을 빌려주겠다"고 '선심'까지 베풀었다.

결국 B교감 일당은 '현직교사가 꽃뱀에 걸려 수천만원을 뜯긴 채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연합뉴스

주민등록번호 도용땐 최고 징역 3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25일부터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재산상의 이익을 노린 경우에만 처벌했으나 앞으로는 단순도용도 처벌대상이 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부터 주민등록 개인정보보호를 대폭 강화한 주민등록법을 본격 시행한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22일 당부했다.

청소년들의 경우 범죄의식 없이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게임사이트 등에 가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범법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행자부는 강조했다. /연합뉴스

■완도 '괴물' 생포작전 동행 르포

전문 엽사들 또 허탕 멧돼지? 살쾡이? 미궁

'괴물(?)을 생포하라'.

지난 21일 오후 4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완도군 외딴섬, '생일도'. 괴물 포획을 위해 광주·전남 밀렵감시단 소속 전문 엽사들이 다시 투입됐다. 2주 전 포획작전에 나서 실패한 이후 두 번째다.

이곳에선 지난해 여름부터 1년 새 20여 마리 염소가 정체불명의 짐승에게 당했다. 텃밭에 남은 발자국으로 미뤄 괴물은 멧돼지라고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괴물을 정확히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엽사들 6시간 넘게 뒤졌지만…

이날 완도군 생일면 유서리 김모(72)씨네 텃밭. 엽사 6명이 동그랗게 섰다. 최근 흑염소 한 마리가 또 괴물의 습격을 받은 것이다. 인가(人家)와 불과 10여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 발견 당시 염소는 살점이 없었고, 가죽은 삐쩍 말랐다. "여기…여기…여기. 이렇게 멧돼지 발자국이 이어지네요. 3~4일은 더 지난 것 같은데…"

발꾼(정찰하는 사람) 김용기(42)씨가 괴물의 흔적을 더듬었다. 사냥개 '향단이'(암컷)가 코를 땅에 대고 '킁킁' 거리기 시작했다. 사냥경력 40년인 베테랑 송윤태(58)씨가 따라붙었다. 나머지 팀원들은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무전기 소리에 집중했다.

30여 분 뒤. "아무래도 힘들겠는데… 평지보다 가파른 산이 많아. 곳곳에 방목하는 흑염소들 때문에 개를 풀 수도 없고. 일단 어두워지면 (멧돼지가) 나타날 가능성이 큰 곳을 중심으로 돌아보자고." 팀원들은 산을 내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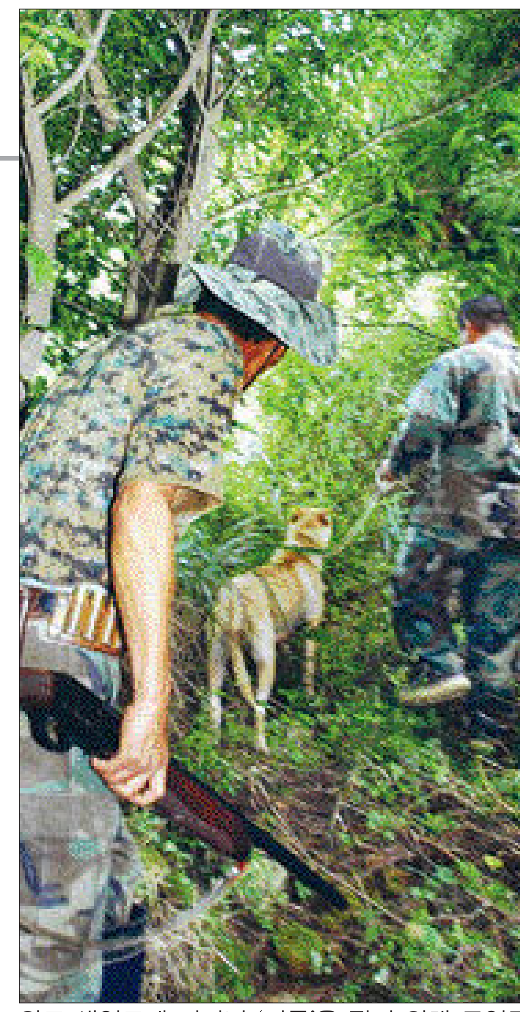
오후 8시 30분. 섬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다. 엽사들의 발걸음이 다시 빨라졌다. 엽총에 맹수용 산탄 탄약을 장전하고, 총부리에는 휴대용 '서치라이트'(searchlight·탐조등)를 달았다. 야간 전투복도 갖춰 입었다. 사냥준비 완료.

팀은 2명씩 3그룹으로 차량에 나눠탔다. 5분 뒤, 목적지에 도착했다. "쉬~잇! 조용히. 야생동물은 조그만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니까 조심해야 해요. 움직일 때도 조심조심…." 엽사 윤길웅(54)씨가 검지 손가락을 입에 대며 속삭였다.

정체 알길 없어 생일도 주민 공포

그러나 괴물은 쉽사리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6시간이 넘게 섬을 뒤졌지만, 고라니 2마리만이 목격됐다. 시간은 어느새 새벽 3시를 훌쩍 넘었다. "숙소로…" 강인소(54) 팀장이 무전을 쳤다. 사냥실패를 알리는 신호다. 강 팀장은 "날씨가 춥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인지 멧돼지가 산 속에서 나오지 않아서 잡지 못했다"면서 아쉬워했다.

다음날 아침. 선착장 근처에서 '괴물을 봤다'는 김두천(71)씨를 만났다. "작년 여름이었제. 염소를 보려고 산에 올라갔더니, 이상한 놈이 내 염소 어깻죽지를 발톱으로 긁고 있더랑께. 놀라서 돌멩이를 집어던졌는데, 아 이놈이 도망가지도 않아. 들개인 것 같기도 하고…."


완도 생일도에 나타난 '괴물'을 잡기 위해 투입된 전문 엽사들이 21일 오후 인근 야산에서 사냥개 '향단이'를 앞세워 추적을 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김씨의 말이 맞다면, 괴물은 발톱이 매우 날카로운 '살쾡이'나 야행성인 '너구리'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측일뿐. 현재로선 괴물의 정체를 확신할 수 없다. 한 여름 생일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괴물의 정체는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편, 완도에서 가장 작은 섬인 생일도는 464가구에 916명이 살고 있으며, 48가구에서 900여 마리의 염소를 키우고 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아시아 톱가수들 다모였네

한국·일본·중국·대만 등 아시아 9개국 정상급 가수 11개팀이 참가한 '아시아송 페스티벌'이 22일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시민 2만7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려하게 펼쳐졌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초·중·고생 3,425명 학업 중도포기

광주·전남 작년 이민·질병·학교 부적응 탓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초·중·고교생 3천425명이 유학, 이민, 어려운 가정형편, 질병, 학교 부적응 등으로 학업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학생 중 1천244명(36.3%)은 재입학, 편입, 복학 등을 통해 학업에 복귀했으나 나머지 2천181(63.7%)은 학교로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병두 의원(열린우리당)이 22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광주 1천560명, 전남 1천865명 등 3천425명의 초·중·고교생이 학업을 그만뒀다.

초등학생의 경우 748명 중 213명(광주 151명, 전남 62명)이 유학이나 이민으로 학교를 떠났다. 이들 학생 중 395명(52.8%·광주 253명, 전남 142명)은 복귀하지 않았다.

중학생은 806명중 87명(광주 64명, 전남 23명)이 유학이나 이민으로 학교를 떠났으며, 440명(54.7%·광주 251명, 전남 189명)은 학교로 돌아오지 않았다.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734명 중 85명(광주 51명, 전남 34명)이 질병으로, 314명(광주 152명, 전남 162명)이 가정형편 때문에, 128명(광주 42명, 전남 86명)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학업을 중도에 포기했다. 유학이나 이민으로 학교를 떠난 학생도 144명(광주 109명, 전남 35명)에 달했다. 이들 학생 가운데 329명(44.8%·광주 147명, 전남 182명)은 학교로 복귀하지 않았다.

실업계 고등학생은 1천137명 중 480명(광주 169명, 전남 311명)이 가정형편 때문에 학교를 떠났고, 336명(광주 111명, 전남 225명)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118명(광주 85명, 전남 33명)은 품행 문제 때문에 학교를 그만뒀다.

이들 중 학교로 돌아오지 않은 학생은 910명(80%·광주 387명, 전남 523명)이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초·중·고교생 780만명 가운데 5만5천525명(0.71%)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했으며, 이들 중 3만1천880명(57%)은 다시 학교로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태종기자 hwangtae@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시판 올리브유에 발암 물질

웰빙식품으로 각광받으며 시판중인 올리브유 제품 중 다수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되고, 성장기 어린이들이 섭취하는 영유아식에서도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유해물질 선행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41종 1천296개 식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33개 제품에서 발암물질, 중금속, 식중독균 등 각종 유해 물질이 검출됐고, 이중 기준을 위반한 부적합 건수는 1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판 중인 올리브유 제품 30개 중 9개 제품에서는 강력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적게는 1㎏당 0.03㎍에서 많게는 3.17㎍이 검출됐다. /연합뉴스

전남女순경 공채 107 대 1 전국 최고

올해 들어 2차례 실시된 순경 공채의 경쟁률이 잇따라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워 최근 지속돼온 취업난과 공무원직 선호 경향을 실감케 했다.

22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06년 2차 순경 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전남청의 여자 경쟁률이 107.1대1로 지방청 중 최고를 기록했으며, 인천경찰청이 30.3대1로 최저였다.

남자 경쟁률은 부산경찰청이 114.1대1로 지방청 중 가장 높았고 경기경찰청이 34.2대 1로 가장 낮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남자 472명과 여자 202명을 뽑는 순경 일반부문 경쟁률이 남자 52.0대 1, 여자 47.7대 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이는 종전 최고 경쟁률이었던 올해 1차 당시의 남자 46.8대 1, 여자 40.2대 1을 뛰어넘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반부문과 별도로 남자 32명과 여자 8명을 뽑는 정보통신 부문의 남녀 경쟁률은 각각 22.5대 1과 9.0대 1이고 135명을 선발하는 101 경비단 2차 채용은 30.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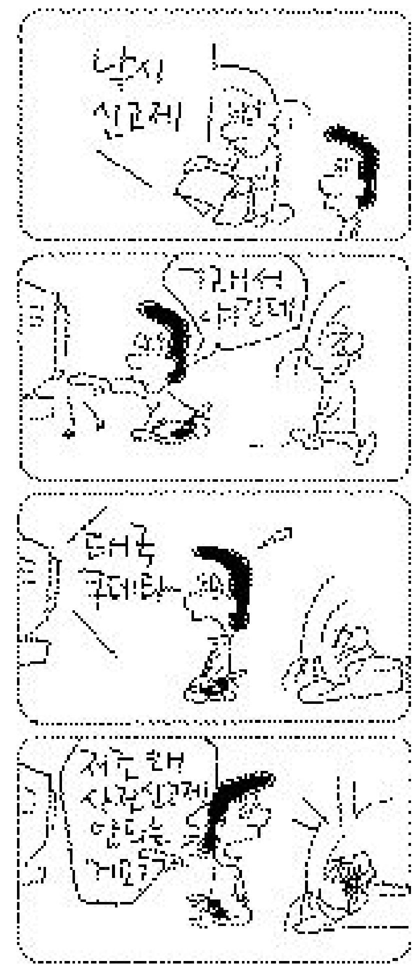
탤런트 이혜영씨, 前남편 고소

가수 출신 탤런트 이혜영(36)씨가 전 남편인 가수 이상민(31)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이혜영씨는 '이상민씨가 작년 8월 합의이혼하기 전까지 내게서 22억여원을 가로챘다'며 지난달 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상민씨와 2004년 6월 결혼했다가 헤어진 이혜영씨는 고소장에서 "이씨가 내게 모바일 화보용 누드사진을 찍으라고 종용해 계약금 등을 가로채고 나 몰래 사업자금, 동업자금 등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내 명의로 돈을 받거나 꾸어썼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나원참 〈6934〉 김종두



중국산 조기 국산 속여 판 유통업체 대표 입건

광주서부경찰은 22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중국산 조기를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수산물 유통업체 H수산 대표 김모(67)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부터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에 수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3억여원어치의 중국산 조기를 원산지 표시 없이 다른 유통업체나 시장 상인들에게 도·소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가 유통시킨 중국산 조기 가운데 일부는 굴비로 유명한 영광의 업체로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한나라 박근혜 전대표 여동생 박근령씨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2일 시교육청 승인없이 임대사업을 한 혐의(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육영재단 박근령(여·52) 이사장과 재단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재단 운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감독청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강행했고, 원심 판시 임대행위 이전에도 승인 없이 부동산 임대업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쌍나팔

'아라시 보기위해…' 팬 수백명 소동

○…22일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 '아시아송페스티벌'에 참가한 일본의 남성 5인조 아이돌 그룹 '아라시'를 보기 위해 광주공항과 숙소 등에 수많은 팬들이 몰리는 등 한바탕 소동.

○…'아라시'멤버들은 지난 21일 김포공항으로 도착한 뒤 바로 광주행 비행기를 갈아탔는데, 이 사실을 안 서울의 일부 팬들이 항공기 티켓을 끊어 광주공항까지 동행했는가 하면 수백명의 광주팬들은 이들을 광주공항에서 기다리는 진풍경을 연출.

○…특히 일부 팬들은 아라시가 공항에 모습을 나타내자 공항청사가 떠날 갈 듯이 고함을 질렀으며, 일부는 아라시가 공항 밖 차량에 탑승하자 마자 택시를 잡아 타고 뒤쫓아 가기도.

○…행사 주최측인 국제문화산업 교류재단은 아라시의 숙소인 담양리조트에도 팬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 숙소 곳곳에 경호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이 호텔의 객실 40여개를 통째로 예약해 눈길.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